

기획시리즈

노인문제의 현주소(9)-치매

가족의 '부양고통' 함께 치료돼야

부양의무 여성에게 쏠려, 간병 이후 질병에 시달리기도

“며칠 전에는 어머니를 붙잡고 평평 읊었어.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서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툭하면 집을 나가시니 찾아다녀야 하고, 사나워져서 욕하고 부수고... 마음도 아프지만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

5년째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친정 어머니 태순동(89세) 씨와의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토로하는 김경희(68) 씨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심신이 지쳐있다. 몇해 전부터 김 씨도 관상동맥증에 시달리고 있고 남편(72)마저 폐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지난해 말 남편이 큰 아들에 집을 빌려가기 전까지 한집에 한사람만 셋이었다. 김 씨가 무남독녀 외딸인지라 달리 가 계할 동기집도 없는 형편이다.

대부분 50대 여성이 간호·간체·경제적 감당 어려워

“내 자식들은 막내딸만 빼고 모두 출가했고 며느리만 몇씩 있는데도 누구하나 도와주려는 애가 없어. 지난해 가을에는 큰며느리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겨울 날 때까지 쉬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모셔간지 사흘만에 다시 오시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집을 때 시부모 모실 각오는 했지만 시외할머니 모실 생각까지는 안했다’고 하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 자기 삶은 일도 못한다는 주의야.”

김 씨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환자여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물론 목적 없이 집을

나가는 배회증상, 심한 기억장애, 인격장애, 불안, 초조, 난폭한 욕설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김 씨가 어머니와 떨어져 잠시라도 쉴 수 있으면 간병인을 구하거나 복지관, 병원 등을 찾아야 하는데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 씨가 한푼 없이 들여야 하는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치매환자 여성노인이 절대적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치매가족의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를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있지만 생각했던 만큼 진전도 없고 화도 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가족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한다.

2년 전부터 아내(84)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별다른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재식(85) 씨는 “시골에서 돈 한푼 없이 서울로 올라온 이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사 주었는데 그 후로부터 밥이 새까맣게 타도 모르고 미역국에 콩나물을 넣고 끓이거나 반찬사러 간다고 나간 후 해가 저도 들어오지 않고 해서 찾아다니기도 여러번이었어. 철조망을 쳐놔더니 그 밑으로 기어나가기도 하더군. 나중에는 두손을 뒤로 해서 묶어두고 밥먹을 때만 풀어주었더니 점점 쇠약해지더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도 치매환자라고 받아주지도 않아. 나도 나이가 들어 매번 힘으로 다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라며 말을 잊지



치매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는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못한다.

치매에 대한 연구작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로 진단된 환자가 완치된 예는 없다. 일반 정신병원에서조차 치매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간병이나 보호는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하에 있다.

일반 정신병원에서도 치료·입원 기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치매전문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원성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그간의 속사정도 털어놓고 간병의 방법도 교환하기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날 ‘치매가족의 모임’을 갖는다. 며느리, 딸부터 아들, 아내나 남편 등 가족 중 누구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지난 한해동안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가족모임에 등록된 치매노인의 주간호자 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매노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74%가 여성노인(평균연령 74.1세)이며 치매노인의

치매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간병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사부나 서울시의 관련부서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수치도 파악해 놓지 않을 정도로 치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성원은 동거 며느리, 동거 딸, 치매노인의 부인 등 여성가족 구성원이 절대 다수였다. 이들 여성 간호인들의 28% 정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내의 주가사담당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이외에도 평균 1.7명의 가족성원을 보호부양하고 있었다.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여성가족들의 연령은 평균 50대 후반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갱년기를 맞은 시기. 특히 이들은 자신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정성에 비해 자녀들로부터는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간병 이후로 신경정신과적 질환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의 부양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차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족들, 간병인·단기보호기관 원해

그럼에도 치매노인의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 일주일 중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상담전화를 받는 <치매노인의 전화>(이사장, 이성희)에는 지난 2월 한달 동안 1백8건에 달하는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상담 중 절대다수

는 치매노인을 단기간 맡길 수 있는 보호기관에 대한 문의였다.

이성희 씨는 “드물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적인 병간호로 인해 개인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풀수 있도록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치매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간병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매노인의 전화>의 이성희 씨는 “외국에서는 부양가족들이 느끼는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치매노인 가족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다른 하나는 바로 간병인이다. 전국적으로 약 10개의 간병인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간호가 어렵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적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탁로소에는 치매할머니 8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합해 8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환자 한명당 한명 이상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탁로소의 김경자(간호사) 씨는 “인력이 적어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힘들다. 그저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도다”라고 전한다.

보사부나 서울시의 관련부서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수치도 파악해 놓지 않을 정도로 치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의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도 부족한데 치매노인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말이 정부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치매노인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노인의 전화의 서혜경 씨는 “몇년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치매노인을 등장시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별다른 치료법이 발견되거나 복지시설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매 자체만 부각시켜 50~60대의 젊은 노인들에게 괜한 공포심을 심어줬다”며 “젊은 노인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황금희 기자)